

미군정 시대의 한국음악교육 실태: 1945~1948*

문 경 숙**

본 연구에서는 해방직후에 실시된 미군정(1945.9-1948.8)이 당시의 한국음악교육 실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책을 시도했으며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측 요원 3인의 기사 자료, 군정청의 활동보고서, 당시 발행된 공문서 및 음악 교과서 등의 사료를 검토하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교과서 발행, 교사재교육 실시 및 음악활동 지원 등 가시적인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성음악학교 사범과 신설(1946.2) 등 몇몇 의미 있는 시도가 무산되었고 군정기간 중 음악교수요목 개발을 외면해버린 것 등은 미군정이 제도적개선 의지가 미약했음을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2년 11개월이라는 시한부 군정으로서의 한국음악교육의 새로운 정책개발에 손 댈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음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음악교육가들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 주제어: 한국 음악교육역사, 미군정기 한국음악교육, 한국음악교육의 정체성

차 례

- I. 서 론
- II. 1945년 이전 한·미·일 삼국의 음악교육 실태
 - 1. 미국의 음악교육
 - 2. 일본의 음악교육
 - 3. 한국의 음악교육
- III. 미국인이 본 한국음악교육
 - 1. 폴크너가 본 음악교육환경
 - 2. 헤모워츠가 본 음악 활동
 - 3. 노아가 본 개선 노력
- IV. 군정 음악교육의 특성
 - 1. 음악교육모델개발
 - 2. 음악 교과서 편찬
 - 3. 음악교사 양성
 - 4. 음악 활동 지원
- V. 결 론

* 이 논문은 2013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공주교육대학교 부교수(ksmoon@gjue.ac.kr)

I. 서론

해방 직후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실시된 미군정은 한국 음악교육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입시키고자 몇 가지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군정청 안에 음악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미국인 음악교육 전문가를 배치하기도 했다. 가장 크게 비중을 둔 음악교육 정책은 한글 음악교과서 편찬사업과 음악교사 재교육 및 음악활동 지원 사업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군정 때 시행된 의무교육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전국적으로 음악교육을 확산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미군정은 2년 11개월이라는 시한성 때문에 한국음악교육의 개발을 위한 장기적 정책수립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이나 음악교육과를 대학에 설치하는 문제 등은 시도만 했을 뿐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군정이 당시의 한국음악교육 실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책을 시도했으며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 기간에 군정청에 파견되어 음악교육분야를 담당했던 음악교육 전문가 모리스 폴크너(Maurice E. Faulkner), 일라이 헤모위츠(Ely Haimowitz), 맥스 노아(Max Noah) 등 3명과 군정에서 선정한 초등학교 시범음악교육 모델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여 중점 검토했다. 여기에 사용된 연구 자료는 폴크너의 기고문 “동양에서의 음악교육(Music education in the orient)”(*『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 1947년 1월호에 게재), 노아의 기고문 “한국에서의 임무(Mission in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1949년 5월호 게재), 헤모위츠의 인터뷰 기사(2003년 2월 *『아시아 연구 저널(The Journal of Asian Studies)』* 게재 논문 “한국의 문화 냉전:1945-1950(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에 수록)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토대로 미군정기 한국음악교육의 실태를 연구했다.

이 밖에도 미 군정청 내부의 교육정책 문서 및 월례보고 문서와¹⁾ 그리고 『문교

1) 미국 국립공문서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와 워싱턴 국립기록 센터(Washington National Record Center)에서는 주한 미군정청의 교육관련 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985년에 비밀 해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정태수가 1992년에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 교육관련 모든 공문서 및 보고서를 두 권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으로 발간을 했다. 이 책자에는 원문과 번역본이 모두 실려 있다. 이길상(1992)도 『해방전후사료집: 미군정 교육정책』을 편찬했으며 이 책자에는 원문만 실려 있다.

행정 개황(1946)』, 『초중등학교각과 교수요목집 (1946-1947)』, 음악 교과서 등 당시 군정청에서 발행된 각종 출판물 등을 검토하였다.

II. 1945년 이전 한·미·일 삼국의 음악교육 실태

미국은 유럽에서 음악교육을 도입해서 공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을 발전시켜나갔다. 일본은 명치시대 발전하고 있는 미국음악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미국 음악 공교육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음악 공교육의 불모지였던 한국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식 음악교육이 이식되었다. 말하자면 한국은 미 군정 이전에는 미국식 음악교육이 가미된 일본 군국주의 음악교육을 통해 미국식 음악교육의 미미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것이다.

1. 미국의 음악교육

미국 음악교육은 유럽 음악교육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특히 스위스의 페스탈로치식 음악교육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유럽의 페스탈로치 음악교육을 미국에 처음 소개한 이는 비음악인으로 교회목사이자 지리학자인 윌리엄 우드브리지(William C. Woodbrige, 1794-1845)이라는 인물이었다. 미국 교육계에서 공교육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던 1820년대에 우드브리지가 휴양차 유럽을 방문 때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실험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던 어린이 가창지도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1829년에 귀국한 그는 비음악인이면서도 대중강연, 음악인들과의 접촉 및 유럽 음악교과서 소개 등 활발한 음악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찬송가 중심의 가창교육이 전부였던 미국인들에게는 어린이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이 같은 새로운 음악지도방법이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유럽식 어린이 교육을 본받자는 여론이 높아졌다(문경숙, 2013, pp.7-10).

이 같은 여론의 높은 관심은 후에 공교육 제도에 음악교육을 도입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보스턴 음악 아카데미(Boston Music Academy)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833년에 설립된 보스턴 음악 아카데미는 조지 스넬링(보스턴 초등학교 이사), T. 캠퍼 데이비스(변호사), 사무엘 엘리엇 (보스턴 시장), 로웰 메이슨(음악인) 등이 주역이 되어 1836년 보스턴 공립학교 이사회에 음악교과를 공립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보스

턴 공립학교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위원장 데이빗 변호사)를 설치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1838년 8월 23일 특별위원회 보고형식으로 보스턴 음악아카데미의 건의 내용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의 채택은 미국 어린이 음악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사실로 기록된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839년 연차보고서에서 보스턴 공립학교 이사회가 채택한 이 보고서를 “음악교육 대헌장(Magna Charta of Music Education)”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헌장 선포를 계기로 미국 음악교육이 일대 혁신을 맞게 되었다(문경숙, 2013, pp.14-18).

특기할 사항은 일반 사회지도층이 일반 시민의 호응을 얻어 미국 음악교육의 개발에 앞장서고 나선 것이 미국 음악교육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초창기 미국음악교육의 혁신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지향한 미국적인 민주적 교육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보스턴 지역에서 태동한 미국의 음악 공교육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1852년에는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와 함께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음악이 정규교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86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 전역으로 음악 공교육이 확산되었다.

이같이 음악 공교육제도가 확립되자 ‘음악전문교사 (music specialist)’ 또는 ‘음악 주임(music supervisor)’이라 불리우는 음악교육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메이슨(L. Mason, 1792-1872)은 초창기 미국 음악교육 발전에 그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미국의 음악교육전문가 1호이자 미국 공립학교 음악교육의 ‘아버지’ 라고도 불린다.

초기의 이들 음악교육전문가들은 소속 지역의 공립학교 음악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담임 교사의 음악수업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한 음악 교과서 편찬에 주력하였다. 특히 음악 교과서 편찬사업은 상업적으로 크게 번창하였다. 루터 화이팅 메이슨(L. W. Mason, 1818-1896)이 편찬하고 ‘보스턴 진 형제(Ginn Brothers of Boston)’ 출판사에서 1870년에 출판한 『국민 음악 코스(The National Music Course)』는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는 독일 민요가 대다수를 차지했다(Mark & Gary, 1999, p.175).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색채가 한결 짙어진 음악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갔다. 1907년도에는 전국 음악교육전문가들의 협의체 형식의 ‘전국 음악 주임 협의회(Music Supervisors’ National Conference, MSNC)’가 결성되었다. MSNC(1934년 ‘음악교육가협의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MENC)로 명칭 변경)’는 커리큘럼 개발,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및 홍보 활

동 등 대외적으로 폭 넓은 음악교육활동을 펼쳐 나가며 미국 음악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중등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과 같은 연주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학교 연주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미국에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음악경연대회(music contests)’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음악경연대회의 폐해가 지적되자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음악제(music festivals)’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음악제의 종목은 일반적으로 밴드부, 오케스트라, 성악부문으로 구분되어 개최되었다. 이 중 특히 밴드부의 인기는 압도적이었다. 예를 들어 1940년 미국 전역에서 개최된 음악제에서 밴드부는 436개가 참여했으며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적은 88개였다(Humphreys 1989, pp. 54-58).

이 같이 20세기 초 학교 음악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전문학원인 콘서바토리와 사범학교에서 발전한 사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음악교사양성을 전담하는 ‘공립학교 음악(public school music)’ 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범대학교에서 많이 설치했으며, 1920년대 접어들어서는 음악 대학에서도 음악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Humphreys, 2010, p. 129).

2. 일본의 음악교육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 명치정부가 근대화를 표방하면서 서구식 음악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나 점진적으로 천황제의 찬양과 군국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음악교육이 변질되어 나간 특징을 지니고 있다.

1868년 명치유신 이후에 근대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던 명치정부는 1871년 문부성을 설치하고 그 다음해에는 서구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일본 최초의 공교육 ‘학제’를 공포했다. 이 학제에서는 소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목 가운데 음악이 포함됨으로써 음악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부성은 음악교육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유보함으로써 학교 음악교육은 즉각 실시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음악 교과목이 학제에 반영된 것은 “명치정부가 일본을 최대한 빨리 서구화시키고 근대화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Ogawa, 1991, p.119).

학제 반포 이후 명치정부는 미국을 본받아 음악 공교육을 발전시켰다. 문부성은 1875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브리지워터 사범학교

(Bridgewater Normal School)에 시찰 유학생을 보내 미국의 공교육을 연구 해 오도록 했다. 이 중 음악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아이치사범학교 교장인 이자와 슈지(S. Isawa 1851-1917)는 브리지워터 학교의 교원이자 보스턴 지역 초등학교의 음악감독관이었던 메이슨(L. W. Mason)에게 음악교육에 대해 배웠다. 1878년 유학을 마친 이자와는 유학생 감독관 메가타 타네타로(T. Megata, 1853-1926)와 함께 문부성에 “공립학교에서 가창지도를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A Plan for Promoting the Teaching of Singing in the Public School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학교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통 음악은 적합하지 않으며 서양 음악을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이슨을 초청할 것과 음악교육을 전담하는 ‘음악 조사 위원회(Music Study Committee)’를 문부성에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겨있다(May, 1965, pp. 114-115).

상기의 제안을 바탕으로 문부성에는 1879년 ‘음악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사 훈련,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의 작업이 추진되었다. 1880년에 문부성은 메이슨을 직접 일본에 초청하여 음악 교과서 편찬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의 편저 『국민 음악 코스』는 1882년에 출판된 일본 최초의 음악 교과서인 『소학창가집』의 모델이 되었다. 『국민 음악코스』에 수록된 노래 대다수가 『소학창가집』에 그대로 실렸다(Ogawa, 1991, pp. 123-125).

그러나 『소학창가집』의 가사만은 문부성이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애국(愛國)’과 ‘충군(忠君)’을 결합하여 ‘충군애국(忠君愛國)’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 천황제를 근간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던 일본은 충군애국 사상이 『소학창가집』의 가사에 반영되도록 검열 지침을 만들었다. 그 결과 수록곡 총91곡 중 40여곡에 이르는 많은 노래가 천황이나 일본에 대한 칭송 또는 충성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이권희, 2013, p. 316-317).

1889년의 대일본제국헌법 선포를 통해 천황제를 공식적으로 확립한 메이지 정부는 1890년대 접어들면서 천황제 기반의 군국주의식 음악교육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천황제 확립 후 1891년 ‘축일대제일 의식규정(祝日大祭日 儀式規定)’을 제정한 일본은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 원시제(元始祭), 신상제/간나메사이(神嘗祭), 신상제/니나메사이(新嘗祭)에 “학교장, 교사, 학생 모두 식장에 모여 의식을 거행”해야 하며 “축일대제일에 해당하는 창가를 합창”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문부성은 2년 후인 1893년에 “기미가요”를 포함하여 총8곡을 ‘축일대제일 창가’로 선정하여 가사와 악보를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축일대제일 의식을 거행하려면 어느 학교에서든 창가를 가르쳐야 했으며 학생들은 “기미

가요” 및 다른 의식 창가를 암기해서 부르도록 강요당했다(유영민, 2011, pp. 98-104).

1937년 중일전쟁과 1940년 태평양 전쟁 도발을 통해 제국주의 행로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본의 음악교육은 군국주의 음악교육으로 더욱 변질되어갔다. 일제의 패망 시기인 1940년대 초에 들어서 일본은 ‘국민학교령’(1941년 3월)을 제정하여 황국신민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교과서는 전부 국정으로 통제하였다. 이 때 발간된 음악 교과서 『우타노홍(상·하)』는 ‘기미가요’ 및 의식창가와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 군사사상을 고취시키는 등의 노래가 주를 이루었다.

3. 한국의 음악교육

한국의 학교 음악교육은 1886년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찬송가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민간이 설립한 각종 사립 학교에서도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한 노래가 불려졌으며 계몽이나 애국 등을 소재로 한 노래가 주를 이루었다.

특기할 사항은 이 무렵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한글로 된 창가집이 조선과 만주에서 전파되고 있었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음악 교과서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중등창가』, 『악전교과서』, 『최신창가집』 등이다. 이 중 『최신창가집』은 중국 만주에서 한민족 동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민족 학교 광성중학교의 음악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민경찬, 1997, p.68), 이 책은 한국에도 유포되고 전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는 노래책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 할 수 있도록 한 ‘출판법’을 1909년에 제정했으며 1910년에 발족된 조선총독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중등창가』와 『악전교과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출판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1910년에 출판 금지하였다(민경찬, 1997, p.27). 『최신창가집』의 경우 출판 금지된 연도 및 처분 이유는 미확인이라는 주장(민경찬, 1997, p.27) 외에 치안상의 이유로 1915년에 출판 금지되었다는 주장(강환직, 2010, p.19)도 있다. 출판법에 따른 이같은 압수 및 배포 금지는 해방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1895년 갑오개혁 때 처음 마련되었으나 이 때 음악은 학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1906년에 이르러 비로소 공교육에 음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일본은 군국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교육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은 1910년 한일 합방되기 이 전부터 을사조약(1905년)을 내세워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전초 작업에 착수했다. 통감부는 1906년에 ‘보통학교령’을 내려 기존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라고 개칭하고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업연한도 6년제에서 4년제로 단축시켰다. 이 때 처음으로 음악이 보통학교의 교과목에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다. ‘보통학교령’에는 음악교과의 목적을 “심정을 순정케 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 명시해 놓고 덕성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천황 숭배를 강요했다. 또한 일본의 국정 음악 교과서인 『심상소학창가(1905)』와 『신편교육창가집(1906)』을 그대로 사용토록 강제하였다.

1910년 8월 한국을 식민지로 찬탈한 일제는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전환시키고 일제 강점 36년 동안 천황을 쳐 받들게 하는 제국주의 음악교육으로 변질시켜 나갔다. 음악이 선택에서 필수교과로 바뀐 2차(1922-1938) ‘조선교육령(보통학교시해규칙)’ 때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첨가하여 천황 숭배를 더욱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제43조 紀元節 [초대 일본 천황이 즉위한 날], 天長節, 明治節 [천황 탄생일] 및 1월 1日には 직원 및 아동이 학교에 모여 다음의 식을 행한다. 첫째, 직원 및 아동은 <기미가 요>를 합창한다. 둘째,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를 봉독한다. 셋째,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기초해 취지에 있는 것을 봉독한다. 넷째, 직원 및 아동은 그 축일에 상당하는 창가를 합창한다(오지선 2003, p.63).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자 일본은 군국주의 색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 때 개정된 3차(1938-1941) ‘조선교육령’에는 음악 교과서의 노래 가사는 “가능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조를 함양함에 적절한 것으로 취하여 선택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넣었고 이 시기에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음악 교과서는 조선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부 일본어 가사로 된 곡들만을 수록토록 강제함으로써 음악교육을 통한 일본화 지배를 더욱 강화시켰다(이병담·김혜경, 2007, pp. 182-187).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4차(1942-1945) ‘조선교육령’ 단행하였고 “충량한 황국신민의 연성”을 목적으로 내세워 종래의 보통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4차 교육령에는 “음의 고저, 강약, 음색, 율동, 화음에 대한 민감한 촉각 육성에 힘써야한다.”라는 지침이 첨가되어 있다(오지선, 2003, pp.101-102). “일본은 인간의 귀를 레이더로 만들어 그것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청음 교육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이강숙 외, 2001, p.87).

이 시기 한국에서 사용된 음악 교과서는 일본의 국정 음악 교과서인 『우타노홍,

상 하』를 기초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수록된 노래는 그 가사의 소재가 일본적인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제의 군국 주의적 사상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록된 곡의 태반이 일본 노래의 특징인 2/4 혹은 4/4박자, 12소절-16소절의 길이, ‘요나누키’ 음계의 특징을 지녔다. 당시 조선의 아동들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당하면서 점차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신계휴, 2001, p. 129).

Ⅲ. 미국인이 본 한국음악교육

미군정 통치기간은 일본이 항복하고 25일이 지난 1945년 9월 9일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 15일 까지 총 2년 11개월 간이다. 이 시기에 음악교육을 전공한 미군 2명과 민간인 교수 1명이 음악교육 담당관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모리스 폴크너(Maurice E. Faulkner, 1912-1994)와 일라이 헤모위츠(Ely Haimowitz, 1920-2010)는 군정 초기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었으며 맥스 노아(Max S. Noah)교수는 군정말기에 미국에서 직접 파견되었다.

이들은 귀국 후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이 보고 느낀 한국 음악교육의 실상을 소개했다. 이들이 남긴 회고문 또는 전문잡지에 게재한 기사 등은 해방직후의 한국 음악교육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1. 폴크너가 본 음악교육환경

1944년에 미해군 대위로 일본에 주둔 해 있었던 폴크너는 1945년 11월 군정청 학무국(1946년 3월 문교부로 승격)에 파견되었다. 미국에서 폴크너는 콜롬비아 대학 사범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공립학교 기악부 교사를 지냈으며, 참전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 바바라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ollege)의 기악과 음악 교수로 재직 중 이었다. 군정청에서는 폴크너의 이같은 경력을 고려하여 학무국의 음악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폴크너는 학무국에서 약 1년간의 근무(1945년 11월-1946년 11월)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1947년 1월 미국 음악교육가협회(당시 MENC 시기)의 『음악교육가저널(Music Educators Journal)』에 “동양에서의 음악교육(Music education in the orient)”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근무에 대해 회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는 해

방 직후의 초·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실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회고문에서 폴크너(1947, p.26)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국의 교실 환경, 교재, 발성법, 교수방식, 기악 활동 등이었다. 교실 환경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한 겨울에 연료가 없어 난방되지 않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음악 교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는 교사가 칠판에 직접 노래를 적었다고 한다. 교사는 일제 시대의 교수 방식대로 학생들의 개성과 표현력을 중시하지 않고 무조건 소리를 크게 질러 노래를 부르도록 지도했으며, 악기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악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밴드부와 오케스트라와 같은 기악 합주 프로그램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교실에서 불리는 노래에 대해서는 동양 음악처럼 들리지는 않았고 서양 음악에 기초를 둔 음악 같았다고 적고 있으며 또한 화음이 들어간 노래가 거의 없다는 점도 특징으로 기록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이동도법이 채택되게 된 경위를 기록해 놓았다는 점이다. 폴크너는 한국의 유능한 음악인들로 구성된 음악 자문 위원회(music advisory committee)와 함께 이동도법과 고정도법의 사용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논의 결과 미국식으로 훈련받은 사람 일본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 모두 고정도법 보다는 이동도법에 더욱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시창 지도시 이동도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폴크너는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폴크너(1947, pp.52-53)의 회고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음악교사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폴크너는 음악교사교육 문제를 놓고 ‘음악자문위원회’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 ‘경성음악학교(Seoul Music School)’의 설립, ‘이화여자대학(Ewha Women’s College)’에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음악 과정 개설,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계획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 해 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46년 1월 12일에는 초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 시안을 마련하여 학무국의 초등교육과에 검토를 요청 했다고 한다.

다른 한 편 폴크너는 당시 국내 유일의 교향악단인 ‘고려교향악단(Korean Symphony Orchestra)’의 객원 지휘를 했으며 직접 한국의 음악가들에게 관현악법, 작곡, 지휘 등도 가르쳐 주었다고 적고 있다. 그의 제안에 따라 학무국에서는 ‘고려교향악단(Korean Symphony Orchestra)’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여러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 해 주었다고 한다.

2. 헤모위츠가 본 음악 활동

헤모위츠는 미국 뉴욕의 줄리아드 음악 대학원(Julliard Graduate School)에 재학 중에 참전하였으며 군정청에서 1945년 11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헤모위츠는 피아노 실기를 전공한 사람으로 한국의 음악문화 활동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2월 『아시아 연구 저널(The Journal of Asian Studies)』은 찰스 암스트롱(C. Armstrong)의 “한국에서의 문화 냉전(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는 군정기 문화정책과 관련, 헤모위츠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고 있다.

헤모위츠는 당시 미군정의 우편향 문화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인터뷰에서 헤모위츠는 미군정이 우익 음악인 진영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미군정에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미 군정청에서는 좌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유망한 음악인들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 주둔해 있는 소련의 경우는 재능 있는 한국 음악인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등 적극적인 문화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군정의 근시안적인 문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pp. 76-78).

3. 노아가 본 개선 노력

노아는 미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3일부터 1948년 11월 25일까지 신설된 ‘중앙교원연수원(Teacher Training Center, T.T.C.)’의 음악 분과 자문관으로 재임했다. 노아는 조지아 주립 여자대학(Georgia State College for Women)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미국 음악교육가협회(당시 MENC 시기) 남부 지부의 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노아는 약4개월간의 체한 경험을 “한국에서의 임무(Mission in Korea)”라는 제목의 글을 1949년 5월호 『음악교육가저널』지에 실었다.

이 글에서 노아는 서울 청계 초등학교의 5학년 여학생반의 음악시범수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정세문 교사였다. 정세문 교사의 5학년 음악수업은 ‘중앙교원연수원’에서 지정된 모범음악수업이었다. 노아는 정세문 교사의 음악 수업을 보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정세문 교사에게 대해서는 그와 같이 뛰어난 음악 교사가 한국에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각 도시나

지방마다 한 명 정도는 있다고 적고 있다(p.16).²⁾

이 글에서 노아는 ‘중앙교원연수원’의 음악 분과는 한국 문교부에 미국 음악교육가협회의 아래와 같은 교육지침을 한국에서도 수용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다.³⁾

- (1) 시골과 도시 지역이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어린이가 그의 관심과 역량에 부합하는 음악적 경험과 훈련을 제공
- (2) 음악 지도를 개선하고 충분한 장비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
- (3) 문화, 오락 및 여가 활동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학교의 음악 교육이 지역 사회의 음악, 사회, 가정 생활 속으로 확대
- (4) 모든 가치 있는 음악적 사업을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곳 으로 만드는 바람직한 요소로 보고 이를 장려 및 지원
- (5) 성인 음악 교육을 위한 기회 증진(Noah, 1949, p.16)

IV. 군정 음악교육의 특성

군정 초기 음악교육 목표는 한국 음악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었다. 미군정 1차년도(1945년 9월-12월)에 군정청학무국에 한국인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미 양국 음악인들이 당면 과제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2차년도인 1946년 학무국이 군정청문교부로 개편되었으며 음악 교과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2차년도에 시작된 교사교육 및 음악 지원 사업은 3차년도인 1947년까지 계속되었다. 미군정을 결산하는 4차년도(1948년 8월 14까지)에

- 2) 정세문(1923-1999)은 미군정 당시 1945년 춘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음악교사를 지냈다. 1950년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1961년 문교부 편수관, 1971년 수석편수관, 1973년 편수국장을 지냈고, 1976년부터 건국대 사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음악교육학회와 한국동요작곡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세문은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음악 교과서를 편찬 했으며 음악교육관련 저서 및 논문을 남겼다. 동요 작곡가로서도 그의 활약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동요대상을 세 차례 받았으며 국민훈장 동백장(1974년)을 받았다.
- 3) 미국음악교육가협회가 제시한 상기의 교육지침은 1930년 MENC의 역대 회장 및 저명한 음악교육가들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음악교육가저널』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교정 작업을 거쳤으며 1947년 11-12월호 저널에 최종본이 실리게 되었다(MENC, 1947, p. 19). 한국에도 이 최종본이 전해 진 것 이다. 미국음악교육가협회는 1998년도에 그 명칭을 MENC에서 ‘MENC-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로 바꾸었으며 2011년 9월 1일부터 MENC를 공식 명칭에서 삭제하고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로 변경하였으며 공식적인 약칭으로 ‘NAfME’을 사용하고 있다.

는 교사 연수 기관인 ‘중앙교원연수원’이 설립되었으며 음악교사 연수도 이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 음악교육모델개발

미군정 전 기간에 걸쳐 음악은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에 편제 되었으며 초기에는 체육과 합쳐서 주당 3시간이 배정되었으나 1946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체육과 분리되어 음악과의 시간이 배당되었고 <표 1>은 초등학교 음악과 시간 배당표(주당 2시간)이며, <표 2>는 중등학교 시간 배당표이다. 중학교에서 음악교육은 필수 과목이며 배당 시간은 주당 2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이 선택과목이다.

<표 1> 초등학교 음악과 교과 편제 및 시간배당(1946. 9. 1)

교과 \ 학년	1	2	3	4	5	6
음악	80(2)	80(2)	80(2)	80(2)	80(2)	80(2)

*시간 수는 1년을 40주로 한 연간 시수임. 괄호 안은 주당 시수(문교행정개황 1946, 441)

<표 2>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과 시간배당(1946. 9. 1)

교과 \ 학교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7	8	9	10	11	12
필수	2	2	2	-	-	-
선택	2	2	2	2	2	2

*출처: 미군정 활동요약보고서(1946년 9월), 주당 시수임.

그러나 미군정 때 핵심적인 교육과정 문서라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各科 교수요목집(1946-1947)』에는 음악과목이 빠져있다. 여기에는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교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총 8개 교과(‘이과,’ ‘과학과,’ ‘국어과,’ ‘영어과,’ ‘산수과,’ ‘수학과,’ ‘사회생활과,’ ‘실업,’ ‘상업과’)만 담겨 있다.⁴⁾ 즉 음악과의 경우는 교

4) 1946년 11월부터 1947년 8월까지 1여년에 걸쳐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된 총5권의 『초중등학교各科 교수요목집』은 미군정 때 개발된 교과 교육과정 문서로 각 교과별 주요한 교육내용의 개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음악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는 자세한 자료는 없다. 교수요목집에 포함된 과목은 ‘이과,’ ‘과학과,’ ‘국어과,’ ‘영어과,’ ‘산수과,’ ‘수학과,’ ‘사회생활과,’ ‘실업,’ ‘상업과’ 등 이다. 교수요목집의 문서 구성 체제는 교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산수과’의 경우는 교과내 내용만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였으나 ‘국어과,’ ‘사회생활과’등은 교과의 목적, 지도 방침, 활용 가이드, 지도상의 유의점(교수에 관한 주의), 교수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김진숙, 2012, 39).

과 편제 및 시간 배당만 있었을 뿐 교육과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군정청에서는 대신 교사재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일선 음악교사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새로운 음악지도방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특기할 사항은 음악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이다. 앞서 언급한 정세문 교사의 서울의 청계 초등학교 음악수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노아(1949)에 따르면 정세문 교사는 이 시범 수업에서 2성부 노래, 리듬 밴드 연주, 오르간 반주 및 지휘하기, 창작하기 등 학생들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선보였다고 한다. 그의 음악 수업은 컬러 영화로 제작되었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p.16). 즉 정세문의 음악 수업은 미군정 당시 한국에서의 최신 음악수업인 셈이다. 노래하기, 밴드연주, 지휘하기, 창작하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수업내용은 미국식 음악교육 모델을 한국 음악교육에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사진 1] 노아(M. Noah)의 MEJ 기사 “한국에서의 임무”에 소개된 정세문 교사의 청계초등학교 음악시범수업의 사진(Noah, 1949, p.15에서 재인용)

노아는 청계초등학교의 정세문 교사의 음악수업을 군정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음악수업으로 극찬했다. 노아의 회고록 자료 이외에 청계초등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앞으로 발굴된다면 군정기 음악교육 연구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미군정청의 지시에 따라 군국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모토 아래 『학습 지도요령-음악과(學習指導要領 -音樂科)』이라는

제목의 음악과 교수요목이 1947년 7월에 고시되었다. 작곡가 사부로 모로이(Saburo Moroi, 1903-1977)가 음악과의 학습지도요령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⁵⁾ 이 점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음악교육에 임하는 미군정 당국의 정책적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교수요목에 따라 미국식 음악교육방법이 적용된 반면 한국에서는 교수요목 없이 교사재교육 강습을 통해 미국식 교육방법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음악 교과서 편찬

1948년 당시 의무 교육의 시행으로 취학한 초등학생수는 2,426,116명이었으며 취학률은 급증하여 73%에 이르렀다(이길상, 2003, p.94). 그러나 심각한 용지부족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과서의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취학 아동에 대한 한글 교과서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있었다.

군정청은 초등학교 용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편찬하여 발행하였다. 중등 학교 교과서는 국어 및 공민 등 두 개 과목을 제외하고 음악을 포함한 나머지 과목의 교과서는 민간측에서 편찬하고 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검인정제로 운영되었다. 이 같은 교과서의 운영제도는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교과서가 출판되는 미국의 제도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며 일제 강점기 때의 교과서 운영 제도와 유사하다.

미군정기에 발행된 음악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 음악 교과서의 경우는 1946년도에 발행된 임시 교과서와 1947년도에 정식으로 출판된 교과서 두 종류가 있다. 임시 교과서는 『초등 노래책』이라는 제목으로 편찬되었으며 두 학년을 묶어 상(1-2학년), 중(3-4학년), 하(5-6학년) 세 권으로 되어 있다. 정식 교과서는 임시 교과서와 제목이 같으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편찬된 점이 임시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이 중에서 6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 해 보면 총21곡의 노래가 실려 있다. 자연, 가족, 계절, 동물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5) 『학습 지도 요령-음악과(學學習指導要領-音樂科)』은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모델로 하였다. 『학습 지도 요령』에는 음악과의 목표와 학년별로 교육 내용의 개요가 담겨져 있다. 가락 만들기를 통한 창의성 개발하기, 가창 및 기악을 통해 표현력 기르기, 악보를 읽고 쓰는 훈련하기, 음악에 대한 감상력 기르기 등 다양한 음악 활동 경험과 학생의 흥미 및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내용이 특징적이다(Takeshi, 1998, pp. 131-132).

노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애국가,” “우리 [태극]기를 만들자” 등과 같은 애국심과 국가 의식을 고취 시키는 소재로 만든 노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고 새로운 국가 건국을 열망하는 시대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노래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음계의 경우 서양의 장음계와 일본의 요나누키 장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특징은 일제시대 음악 교과서와 유사하다. 박자에 있어서도 일제시대 주종을 이루었던 4박자(10곡)와 2박자(3곡) 등이 지속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3박자(6곡)계통의 곡도 사용되고는 있으나 일제시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다. 새로운 특징으로는 2성부로 된 화음이 부쳐진 노래가 일제시대와는 다르게 8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2성부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음악 교과서 편찬 당시 군정청의 미국측 전문요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⁶⁾

중등 음악 교과서의 경우는 초등에 비해서 시대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며 서양 음악 요소가 훨씬 많이 눈에 띈다.

1946년 4월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임시중등음악교본』을 살펴보면 총50곡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에는 애국가곡, 상집, 하집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악곡이 편성되어 있다. ‘愛國歌曲(애국가곡)’에는 10곡이 있고, ‘상집(上輯)’과 ‘하집(下輯)’에는 각 각 20곡이 있다. 『임시중등음악교본』의 ‘서언’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선곡요령’이 설명되어 있다.

- 1) 교재를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누어 기술적으로 배치 할 것
- 2) 해방후의 애국적가사를 가급적 수록할 것
- 3) 이미 발표된 예술가곡중 친일파적 작사자, 작곡가의 가곡은 이를 제외할 것
- 4) 외국가곡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민요와 가곡가운데서 예술적 향훈과 교육적 견지에서 탐독할 것.

애국가곡에 수록된 노래는 “애국가,” “한글노래,” “충성가,” “건국노래,” “독립행진곡,” “해방전사의 노래” 등이 있으며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집에 수록된 40곡 중 서양(미국, 유럽) 노래는 26곡이 수록되어있으며 전체 악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매우 높다. 서양 악곡의 종류는 민요와 예술가

6) 미 군정청 내부의 교육정책 문서 중 “학무국의 역사(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교과서 편찬 활동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미국인 음악교육 담당관이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화음(2성부) 노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 문제가 보완된 후에 교과서를 승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USAMGIK, 11 Sept 1945-28 Feb 1946, p.15).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상집의 경우 총6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영국)의 민요가 한 곡씩 수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작곡가(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헨델 등)의 성악곡도 포함되어 있다. 하집도 상권과 마찬가지로 외국 노래의 수록 양은 동일하며 민요(3곡)보다는 가곡(10곡)의 수를 더욱 늘려 서양 노래를 편성했다.⁷⁾

3. 음악교사 양성

해방 직후 취학아동이 급증한 반면 일본인 교사들이 물러남에 따라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군정청 학무국의 통사 보고서 “학무국의 역사(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에는 음악교사의 문제점으로 양적문제, 질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에서는 일반담임교사들이 음악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 목소리와 음악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 2) 중등학교에는 유능한 음악교사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음악학교에서 전문음악 훈련을 받았다.
- 3) 대규모의 학교 체제에 대한 음악 감독 제도가 없다.
- 4) 자격을 갖춘 음악 교사 부족으로 인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USAMGIK, 1945. 09-1946. 02, p. 15).

미군정은 음악교사양성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루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펼쳤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음악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경성음악학교(Seoul Music School)’의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학무국의 역사” 보고문서에는 “현재 경성음악학교설립을 위한 작업이 준비 중이며 앞으로 이 학교에서 매년 100여명 이

7) 총6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영국)의 민요가 한 곡씩 수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작곡가(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헨델 등)의 성악곡도 포함되어 있다. 하집도 상권과 마찬가지로 외국 노래의 수록 양은 동일하며 민요(3곡)보다는 가곡(10곡)의 수를 더욱 늘려 서양 노래를 편성했다. 하집에 수록된 3곡의 외국 민요는 영국민요 1곡(한떨기 장미꽃), 이태리 민요 2곡(불가사의 배인노래, 산타루치아)이다. 이 외에 슈베르트의 “자장가”, 브람스의 “애기재우는 노래”, 드보르샤크의 “꿈 속의 고향”, 덴짜의 “준령을 넘어서”, 귀켄의 “숲속의 노래”, 요나손의 “쿠쿠 왈츠”, 멘델스존의 “오호 종달새”, 웨버의 “사냥꾼의 노래” 등 10곡의 서양 가곡이 수록되어 있다.

상의 훌륭한 음악교사와 음악가들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USAMGIK, 1945,09.11-1946,02.28, p.16). 1946년 2월 1일에 개교한 경성음악학교는 설립 당시 직제는 본과와 사범과로 구분하고 본과는 실기(기악부, 성악부, 작곡부), 사범과는 음악교육을 전담토록 했다. 1946년 1월 6일자 동아일보에도 새로 개교하는 경성음악학교를 소개하는 기사가 아래와 같이 실렸다.

조선의 음악학교 창설코저 준비중이던 현제명(玄濟明)씨는 12월 말일 학무국의 허가를 얻어 2월 1일부터 개교하게 되었다. 동교는 전문학교령에 의한 것인데 남녀공학으로 하되 본과와 사범과를 두고 성악부, 기악부, 작곡부를 둔다.

사범과 신설은 사범대학에 음악교육과를 두거나 음악대학에 음악교육과를 두는 미국식 음악교사양성 제도를 한국에 적용시키고자 시도해 본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범과는 6개월 후 경성음악학교가 서울대의 예술대학 음악부로 개편되면서 없어져 버렸다.

음악교육과의 설치는 중등교원양성을 위해 발족시킨 사범 대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군정청은 1945년 경성사범대학교(1946년 서울대 사범대학으로 개편), 같은 해 대구사범대학교(1952년 경북대 사범대로 개편), 1948년 2년제 초급대학인 충남도립사범대학(1954년 4년제 공주사범대학으로 개편) 등을 설립했으나 이 가운데 음악교육과를 전공학과로 설치한 학교는 없었다. 사범대학에 음악교육과가 설치된 것은 1966년 이후부터이다.⁸⁾

미군정은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해방 당시 10개이던 사범학교를 1947년에 16개로 증설했다. 사범학교는 3년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음악은 사범학교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었다.⁹⁾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미군정의 음악교육정책은 교사 재교육이다.

짧은 기간 내에 교사의 음악지도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미군정은 일시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교사재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현장의

8) 우리나라에 음악교육과가 처음 생긴 때는 1966년이다. 이 때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음악교육과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10개의 사범대학교에 음악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다(석문주·최은식, 2013, p.86).

9) 해방 당시 경성, 대구, 전주, 광주, 춘천, 진주, 청주, 대전, 경성여자, 공주여자 등 10개 사범학교가 있었으며 이 중 경성, 경성여자, 대구 사범학교 등 3개 학교는 1946년에 사범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46년에 생겨난 사범학교 6개교는 충주, 군산, 목포, 순천, 강릉, 부산 등지였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 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미군정청 활동 요약 보고서(Summation of USAMGAK)”에 기록되어 있는 음악교사 재교육 관련 활동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최초의 음악 연수는 1946년 2월 16일 토요일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총 7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처럼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당시 교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내용은 어린이의 음성 문제와 새로운 음악수업방법을 다루었다. 학무국의 한국인 음악요원과 여덟 명의 음악 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했다.

1946년 7월 부터 1948년 8월 미군정이 종료될 때까지 문교부 주최로 ‘전국초등교사 하기음악강습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연수 기간은 1946년에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1947년부터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참석인원은 1946년에는 총285명, 1947에는 총301명이며 1948년도의 참석 인원은 1948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각 도별로 인원을 제한, 180여명 정도가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교사 하기음악강습회의 교육담당은 해외에서 유학한 한국 음악가들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업 내용은 화성, 시창, 지휘 및 음악감상 부터 최신 음악 교수법 (유리드믹스, 음악과 체육과의 관계)까지 다양했다. 이 강습회를 위해 교수 매뉴얼도 문교부에서 개발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7년도의 제2회 하기강습회는 8명의 음악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했으며 수업 주제는 화성, 가창, 지휘, 국악 및 미국음악의 역사 및 감상 등을 다루었다.

미군정청은 군정교육을 결산하기 위해서 1948년 8월에 ‘중앙교원연수원’을 설립하고 제2차 연수(1948. 10. 01-11. 25) 때부터 음악도 연수 과목에 포함시켰다. 제2차 연수생 235명 중에 음악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노아도 군정청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 때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연수의 교육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매일 오전에는 음악 과목을 포함하여 19개의 연수 과목 중 세 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였으며 오후에는 집단강연, 집회,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오후 집회 시간에 앞서 언급한 청계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동의 음악 교실 수업의 시범이 있었으며 큰 반응을 얻었다

10) 미 군정은 군정 3년간에 걸쳐 그 활동 상황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기타로 분류하여 본국 정부에 매월 보고하였으며 총34건의 월례 보고서가 있다(정태수 1992, 3). 음악교사재교육 활동이 기록되어있는 월례 보고서는 1946년도에는 2월부터 8월까지이며, 1947년도에는 1월과 8월 보고서에 기록되어있고, 1948년도의 경우 3월-4월, 6월-8월에 간략하게 나와있다.

(김동구, 1989, pp. 136-137).

노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문교부에 수용하도록 건의한 MENC의 음악교육지침은 미군정의 음악교육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군정을 결산하면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의 음악교육이 나아갈 지표를 제시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 음악 활동 지원

미군정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음악활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군정청이 개최한 음악제 및 음악경연대회는 미국식 음악교육의 대표적인 음악활동 지원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음악제와 음악경연대회에 학교 밴드부의 활성화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원 사업이다.

음악제에 대한 활동 기록은 1946년 5월 월례 보고서에 처음 언급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군정청은 1946년 5월에 ‘음악제 준비 위원회(music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를 조직하고 음악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등학교 음악제와 초등학교 음악제를 구분하여 개최하였다. 월례보고서에 포함된 1946년 5월 부터 1947년 5월까지 1년간의 음악제와 음악경연대회의 활동 기록 및 당시 발행된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¹⁾

중등의 경우 제1회 음악제는 서울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46년 6월 18-19일 양일간 경복궁 근정전에서 개최되었다. 총25개교가 참가했으며 합창부문(19개교)과 관현악 부문(5개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2회 서울지역 중등학교 음악제는 1947년 4월 19-20일에 실시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전국 규모로 중등 음악제가 확대되어 11-12일 이틀간 경복궁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30개교에서 총2000여명(이 중 지방학생 500명)의 학생이 이 음악제에 참여했으며, 합창부문과 밴드부문에는 각 각 15개교가 참여했다. 이 외에도 1946년 11월에는 밴드부만 별도로 한 전국 중등학교 밴드 음악제가 개최되었으며 7개 지역(마포, 대구, 부산, 개성, 청주, 서울)에서 총14개 밴드부가 참가했다.

초등학교 음악제는 1946년 10월에 처음 개최되었다. 중등과 달리 합창부문만

11) 미 군정청 교육정책 월례보고 문서에서 음악제 및 음악경연대회의 활동 기록은 1946년 6월, 10월, 11월달의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1947년도의 기록은 4월, 5월달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음. 이 밖에도 당시 발행된 신문 기사를 통해 개최된 음악제 및 음악경연대회의 활동 기록을 추적하였음(동아일보 1946. 06. 16, 경향신문 1946.10.26, 동아일보 1946.11.12, 동아일보 1947.05.11, 경향신문 1947.10.22, 경향신문 1947. 11.23, 경향신문 1947.12.05.).

있었으며 총25개 초등학교가 여기에 참가했다.

음악제의 추진과 함께 음악경연대회도 개최되었다. 제1회 음악경연대회는 전국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1946년 12월 17-20일 3일간 진행되었다. 콩쿨 종목은 성악부, 피아노부, 제금부(바이올린, 첼로), 작곡, 합창, 취주악 등이었다. 예선전에는 총80여개 학교(서울 30개교, 지방 50개교), 총5천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경합을 벌였다. 초등의 경우는 1947년 6월 개최 예정인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음악경연대회의 예선전이 5월 22일-23일에 치러졌다. 종목은 합창(31개 합창단), 독창(63명 참가), 피아노(26명 참가), 관현악(바이올린 3명)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1948년도의 기록은 군정청 월례 보고문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8월 6일자로 작성된 보고문서 “특별과목 조사과의 역사(History of Bureau of Research & Special Subjects)”에 한 줄로 매우 간략하게 “문교부 음악과의 활동 중 음악제 및 경연대회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활동이다”라고 적은 기록이 전부이다(p. 569).

이 밖에도 군정청은 음악 전문 단체의 연주 활동도 지원한 사업에 대한 기록이 “학무국의 역사” 보고서에 담겨있다. 한국 최초의 교향악단인 ‘고려교향악단’은 창설 초기 학무국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아 활동을 전개했다. 1945년 9월에 창설된 고려교향악단은 12월 부터 학무국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학무국은 4천 5백만원을 기부했으며 학교 음악 연주회 개최, 고려교향악단 연주회 시리즈 개최, 육군 교향악 시리즈, 라디오 방송 연주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재원 마련을 도왔다. 1946년 2월에는 학무국의 승인을 받아 한국 최초의 오페라 협회가 결성되었다(USAMGIK, 1945.09-1946.02, p. 107).

“학무국의 역사” 보고서에는 서양 음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전통 음악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음악전문학교를 통해 명맥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과 미국 본토의 교육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USAMGIK, 1945.09-1946.02, p.16).

V. 결 론

해방직후의 미군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2년 11개월이라는 군정의 시한성이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음악

교육의 경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군정 음악교육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글교과서 발행과 교사재교육 및 음악활동지원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악과 교수요목 제정이 시도도 되지 못한 것과 음악교 사양성제도의 개혁 등이 시도에 그치고 만 것은 시한성 군정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경성음악학교 사범과는 음악대학에 음악교육과를 설치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무산되어버린 것은 제도적으로 한국음악교육이 미국식 음악교육을 도입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군정의 실책이라기보다는 한국 음악교육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시작된 데서 오는 타성에 젖어서 한국 학자들이나 심지어 음악인들에 이르기까지 음악교육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학교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좌초되어버린 후유증이 군정이후 한국음악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는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가들은 한국음악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숙고를 해 봐야 할 것이며 한국음악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환직 (2010). 조선총독부 민족음악 통제에 관한 연구. **국악과 교육**, 29, 7-30.
- 경향신문 (1946.10.26.). 全國音樂競演大會. 경향신문 신문기사.
- 경향신문 (1947.10.22.). 全國男女中等校音樂大會. 경향신문 신문기사.
- 경향신문 (1947.12.05.). 全國男女中學 音樂콩쿨大會. 경향신문 신문기사.
- 군정청, 문교부. (1946-1947). 초 중등학교 각과 교수 요목집. 1권-5권. 서울: 조선
교학도서 주식회사.
- 군정청, 문교부 (1946). 文教行政概況. 문교행정개황. 서울: 조선교학도서 주식회사.
- 군정청, 문교부 (1947). 초등 노래책(6학년 소용).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김동구 (1989). 중앙교육훈련소의 교원재교육과 새교육 운동에 관한연구. **서원대학
논문집**, 23, 117-144.
- 김인용. (2008). 해방 전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교육정책. **교육사상연구**,
22(3), 1-20.
- 김진숙 (2012). 일제강점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 문서 체계분석-총론과
교과의 분화의 독립. **한국교육사학**, 34(1), 27-55.
- 동아일보 (1946.01.06). 最初の 音樂專門敎. 동아일보 신문기사.
- 동아일보 (1946.06.16.). 第一回音樂의祭典 男女二十四敎를 動員 十八日勤政殿서 饗宴.
동아일보 신문기사.
- 동아일보 (1946.11.12.). 全國音樂 競演大會 文敎部主催로 開催. 동아일보신문기사.
- 동아일보 (1947.05.11.). 中等音樂祭 第一日盛況. 동아일보 신문기사.
- 동아일보 (1948.07.30). 敎員音樂講習(교원음악강습). 동아일보 신문기사.
- 문경숙 (2013). 19세기 초 미국의 음악공교육 도입과정. **초등음악교육연구**, 14,
1-23.
- 민경찬 (1997).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해제집 1.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예술연구소.
- 석문주, 최은식 (2013). 사범대학 음악교사 교육과정의 역사적 고찰. 세미나 발표집.
음악교육의 역사적 접근. 제3회 미래음악교육연구회 세미나, 85-98.
- 신계휴 (2001). 日帝下 國民學校令期の 音樂敎育에 관한 研究 : 우타노홍(ウタノホ
ン)의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18, 117-131.
- 오지선 (2003). 한국근대음악교육: 조선총독부 음악교육정책 중심으로. 서울: 예술.
- 유영민 (2011). 민족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일본 근대음악교육과 메이지 이데올로기.
음악과 민족, 44호, 87-108.

- 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2001). 우리 양악 100년. 서울: 현암사.
- 이권희 (2013). 근대 일본의 애국심교육에 대한 고찰: 메이지기 창가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20, 299-319.
- 이병담 김혜경 (2007).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창가』에 나타난 음악교육과 식민성. *日本語文學*, 37, 173-196.
- 이길상 (1992). **해방전후사료집: 미군정 교육정책**. 이길상 편. 서울: 원주문화사.
- 이길상 (2003). 미군정기 초등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 25(2), 75-110.
- 정태수 (1992). **미군정기 한국 교육사 자료집(상) (하)**. 서울: 홍지원.
- 중등음악교과서편찬위원회 (1946). *臨時 中等音樂敎本*. 임시 중등음악교본. 서울: 국민음악문화사.
- Armstrong, C. (2003, Feb.).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1), 71-99.
- Faulkner, M. (1947, January 1). Music education in the orient. *Music Educators Journal*, 33, 26, 52-53.
- Humphreys, J. (1989, summer). An overview of American public school bands and orchestras before World War II.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 191, 50-60.
- Humphreys, J. (2010). USA: Effectiveness of compulsory music education. In G. Cox & R. Stevens (Eds), *The Origins and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pp. 121-136),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Mark, M. L. & Gary, G. L. (1999). *A History of American Music Education*. Reston, VA: MENC-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 May, E. (1965, January 1). The influence of the Meiji Period on Japanese children's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 110-120.
- MENC (1947, November-December). The music educators credo. *Music Educators' Journal*, 34, 19.
- Noah, M. (1949, May 1). Mission to Korea, *Music Educators Journal*, 35, 14-16.
- Ogawa, M. (1991, July).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Beginning of Public Music Education in Japan.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2(2), 113-128.

- Takeshi, K. (1998, January). American educational influences on Japanese music education from the end of World War II(1945) to the First Tentative Course of Study(1947).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2), 115-137.
- USAMGIK (1945, Sep 11-1946, Feb 28).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declassified per Executive Order 12356.
- USAMGIK (1946, February-1948, August). 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 USAMGIK (1948, August 6). History and work of Bureau and Special Subjects. Declassified for Executive Order 12356.

ABSTRACT

**An Investigation on Korean Music
Education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iod: 1945~1948**

Kyung-Suk 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tent of American influences on music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1945 through August 1948. The historical research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the archival records of the USAMGIK Department of Education activities, the government documents, the music textbooks, and various articl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wo aspects. The USAMGIK had considerable successes in bringing about the tangible results such as distributions of music textbooks, operations of teacher reeducation programs; however, the USAMGIK made much less effort institutionalizing the music teacher education department at university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rse of Study in music subject.

Key words: Korean music education history, Korean music education of the USAMGIK period,
Korean music education identity

투고일: 2014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31일(8월 7일), 게재확정일: 8월 21일